



# 안전에도 '똥'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

## 안전에도 '똥'이 필요

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다.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과정 중 하나이다. 사람은 태어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어 사망하게 된다. 이것이 80에서 90살까지 사는 우리 생로 병사의 과정이다. 그런데 모든 삶이 이 과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. 과정을 생략한 인생도 있다. 태어나서 중도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. 실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.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? '안전'이 이와 큰 관련이 있다.

산업현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처럼 시작에서부터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.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삭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? 당연히 당초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. 게다가 단순히 결과물만 못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. 만약 이 생략된 과정 속에 '안전'도 포함되어 있다면,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결과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.

모래 위에 파일을 박지 않고 건축물을 올리거나,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위층을 올리거나, 부실 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. 혹여 운이 좋아 공사

중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후에 입주자가 사고를 입게 된다.

산업현장에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것과 인생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해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이치인 것이다. 예를 하나 더 들면,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'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'는 말이 있다. 즉 과정을 생략하면 결국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. 고로 결과는 과정 끝에 있는 점ियो, 과정은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線(선)임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그 線은 곧 安全(안전)이다.

과정으로서의 안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. 그것은 바로 '기다림'이다. 기다림을 뜻하는 한자 중 하나인 𪔐(구)자는 오래 할 '久(구)'와 불 '火(화)'의 합성어이다. 오래 할 '久'아래에 불을 놓으니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, 다시 말해 '똥'을 들인다는 것이다. '똥'은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그 효능을 인정받아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.

## '대똥'은 부실초래

현대 같은 '똥'이지만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'대똥'이라는 단어가 있다. '똥'은 기다림으로 인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쓰지만,

'대똥'은 기다릴 줄 몰라 손실을 볼 때 쓴다. '대똥'은 그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'빨리빨리'와 같은 뜻이다. 부연 설명하면, 대똥과 같이 급하게 불로 지지면 '화상'만 남게 되지만, 똥처럼 천천히 치료를 하면 '만병통치'의 효과를 얻게 된다.

이는 꼭 의료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. 밥을 지을 때도 똥을 잘들이면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, 마음이 급해 솥뚜껑을 열어 보거나 불 조절을 하지 않으면, 설익은 밥을 먹게 된다. 산업현장에 대입을 하면, 과정을 놓쳐 버린 대똥은 곧 부실을 날게 하는 원인이다. 하지만 '똥'은 일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심포다.

인생사를 두루 보면 빠른 것은 종종 느린 것보다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. 신속함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는 것이다. 하지만 빠름은 실수나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. 그래서 요즘 정부와 산업현장은 '조심조심'과 '천천히'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결국 뒤돌아보면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고, 인명이 제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.

더 늦기 전에 '대똥'은 빨리빨리를 날고, '똥'은 조심조심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제는 대한민국 모두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. ☺